

Business Focus

기업회생시장 동향과 전망

- 기업회생, 재기의 발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향성은?

July 2024

— 삼성KPMG 경제연구원



Contacts

삼성KPMG 경제연구원

김규림

상무

E gyulimkim@kr.kpmg.com

최연경

책임연구원

E yeonkyungchoi@kr.kpmg.com

노승환

선임연구원

E seunghwanroh@kr.kpmg.com

본 보고서는 삼성KPMG 경제연구원과 KPMG member firm 전문가들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의 완전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닙니다. 본 보고서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KPMG의 사전 동의 없이 본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 배포, 인용, 발간, 복제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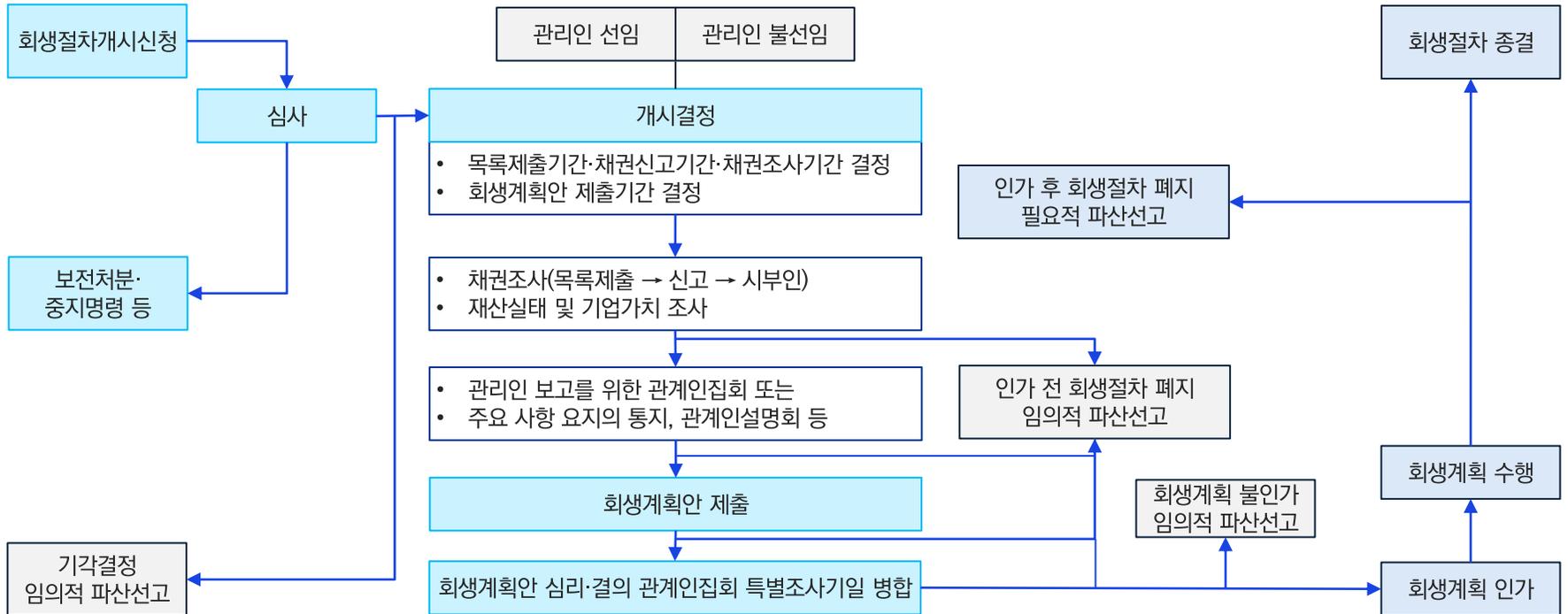
Contents

I. 회생 및 파산 신청 현황	2
II. 회생을 둘러싼 기업 경영 현황	11
III. 회생시장 관련 주요 정책	17
IV. 회생시장 전망 및 시사점	23

기업회생, 경영난에 처한 기업의 재기를 도모하기 위한 사후적 구조조정 방안

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채무자)에 대해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재기(Turnaround)를 도모하는 제도임.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 목적으로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 파산과 구별됨

회생절차 흐름도



Source: 서울회생법원

기업회생 시, 기업 재기를 위한 다양한 전략과 고려사항 요구

기업회생의 성공 여부는 공정성·형평성·실현 가능성·합리성을 가진 회생계획안을 마련·인가·실행하는 데 달려있음. 또한 회생절차의 빠른 진행과 인가를 통해 기업 재건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회생제도가 다양화·전문화되는 양상으로 기업 상황에 맞는 최적의 기업회생 전략 마련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기업회생계획안의 제출 시 가결을 위한 필요사항

기업 회생계획안의 요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법률 규정 준수 ② 공정·형평의 원칙 -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순으로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 설정 ③ 평등의 원칙- 변제조건이 같은 권리자 간 변제조건 등 평등히 관리 ④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 변제방법이 사업 청산 시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함 ⑤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
---------------------	---

- 객관적/구체적 내용과 전략 포함
-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동의

이해관계인의 권리 조정 등에 관한 사항
 채무자의 사업운영계획, 재정상태, 예상 수익, 채무변제 계획
 채무자의 경영 효율성 개선과 재무구조 개선 관련 세부내용 및 전략 등

기업회생 관련 주요 접근 방식

주요 전략	세부내용
스토킹호스 (Stalking Hor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생회사의 신속하고 확실한 매각을 위해 수익계약과 공개입찰을 결합한 M&A 방식 •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로 지칭되는 인수희망자와 조건부 인수계약을 먼저 체결한 후 공개입찰 절차를 통해 스토킹호스보다 좋은 조건의 인수의향자가 있으면 그에 따라 매각하고, 없을 경우 스토킹호스가 인수
P-플랜 (Pre-Packaged Pl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자 부채의 1/2 이상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또는 이러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가 개시 전까지 계획안 및 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목록, 관리인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 사전계획안을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가 회생 개시 전 신규자금을 확보해 신속한 재무구조 개선 도모
자율구조조정 (A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생절차 신청 후 개시 결정 사이에서 기업·채권자의 자율적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로, 자율구조조정이 성사되면 회생절차를 진행하지 않음
DIP 파이낸싱 (Debt In Possession Financ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의 회생절차 기업에 자금을 융통하는 금융기법으로 운영자금/채무변제자금 등 채무자 회사는 우선상환권을 보장하고, 파산 위험을 고려해 높은 금리를 약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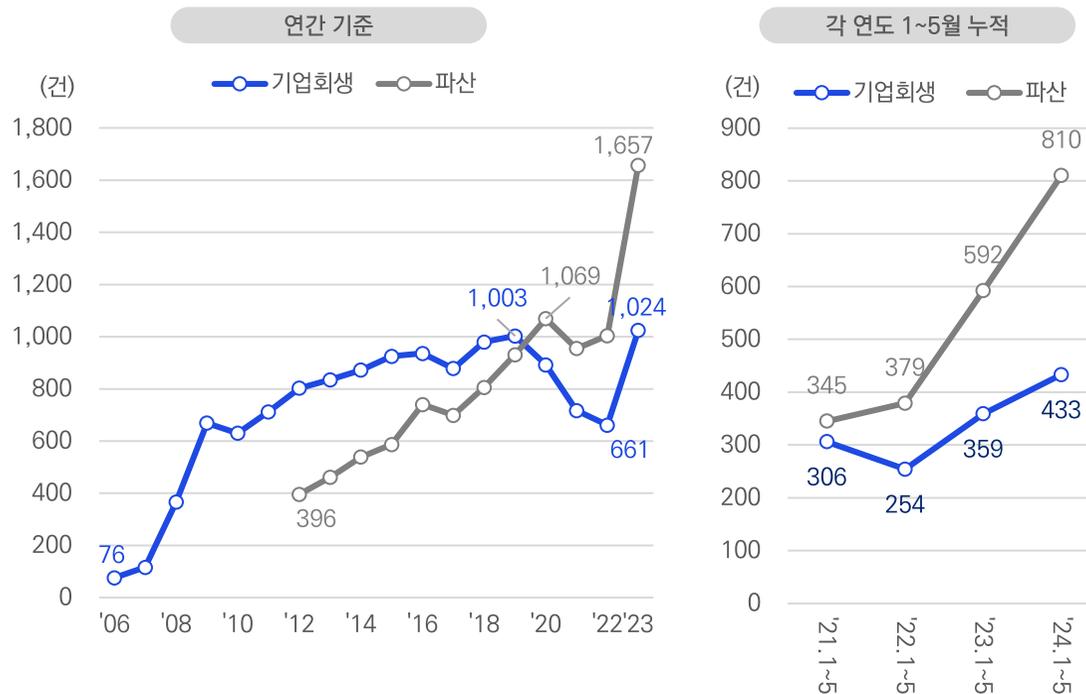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최근 법인 회생·파산 신청은 과거 최고치 경신

'22년 하반기 이후 급격한 금리 인상과 경기 부진에 따른 경영난 등으로 기업이 한계 상황에 봉착하며 '23년 기업의 회생과 파산 신청은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경신함. '24년에도 기업의 회생과 파산 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 회생 등을 활용한 구조조정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법인 회생 및 파산 신청 건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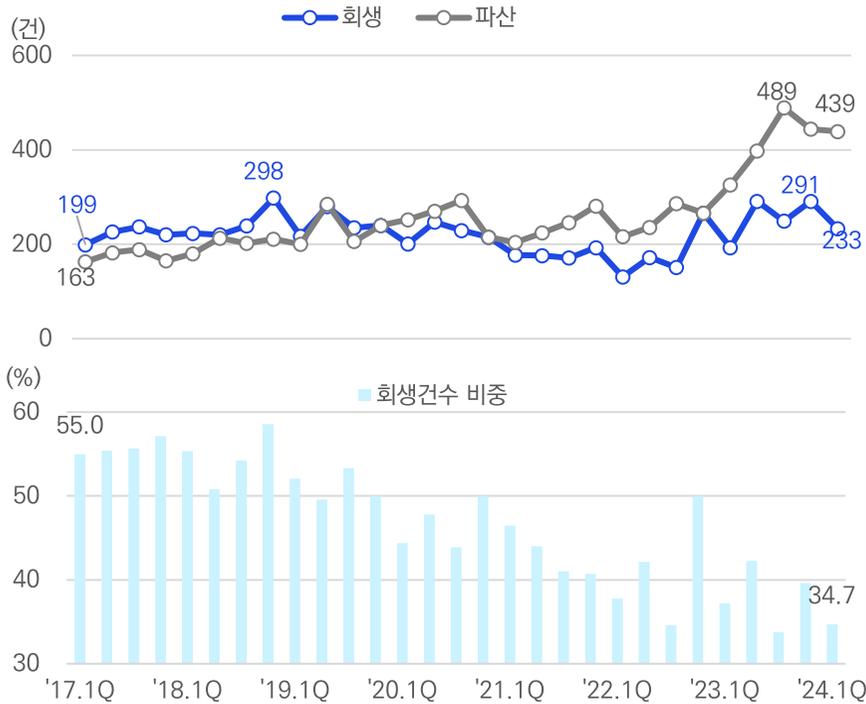
- '23년 기업회생과 파산신청 건은 과거 최고치 경신
 - '23년 기업회생 신청은 1,024건으로 과거 최고치('09년 1,003건)를 경신, 전년 대비 54.9% 증가
 - '23년 기업파산 신청은 1,657건으로 과거 최고치('20년 1,069건)를 경신, 전년 대비 65.0% 증가
- 고금리·고물가, 전반적 경기 침체 등으로 한계기업의 부실이 본격화되면서 '24년도 기업회생과 파산신청 건수도 증가세
 - '24년 1~5월 중 기업회생과 파산신청 건수는 각각 433건, 810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20.6, 36.8% 증가
 - '20~'22년 중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원금·이자 상환 유예 등 금융 지원의 영향으로 기업의 회생신청 건수 감소
 - 그러나 '22년 하반기 이후 급격한 금리 인상과 경기 부진에 따른 경영난으로 기업이 한계 상황에 봉착

Source: 법원통계월보, 대법원(2023) '2023 사법연감'

최근 회생 대비 파산을 신청하는 기업 급증

'24년 1분기 법인 회생 및 파산 신청 건수는 각각 233건, 439건으로 '22년 하반기부터 파산 신청 건수가 급증하는 경향을 보임. 거시경제 환경 등 경영여건 악화와 사전계획안 마련의 어려움 등으로 최근 기업들은 회생절차를 통한 기업 재건보다 파산을 선택하려는 유인 존재

법인 회생 및 파산 신청 건수 추이 ('17년 1분기 ~ '24년 1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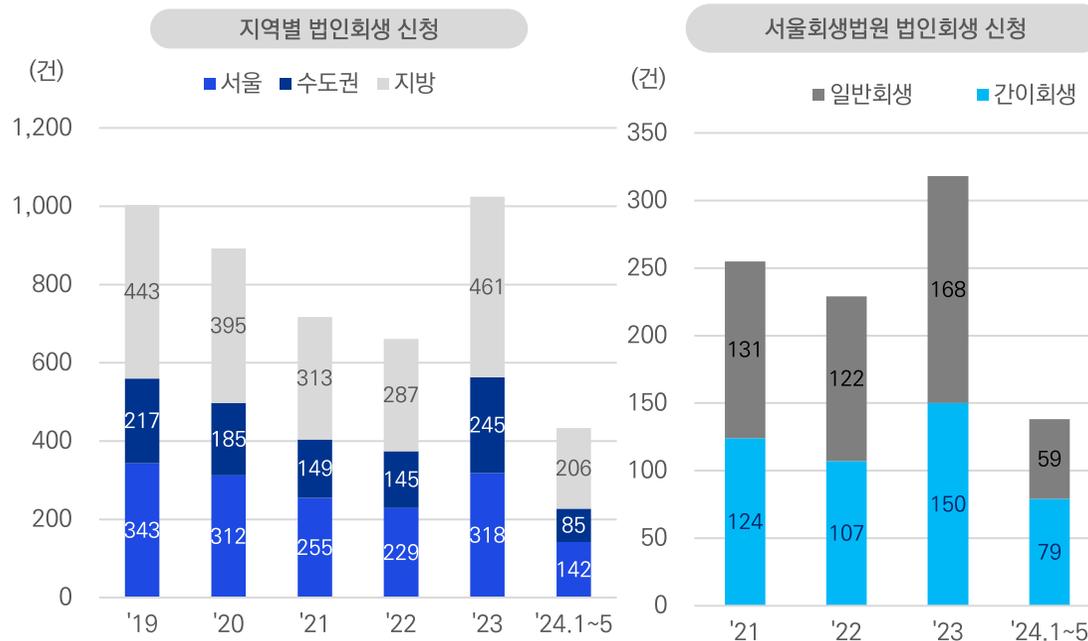
Source: 법원통계월보, 대법원(2023) '2023 사법연감' / Note: 회생건수 비중 = 회생건수/(회생건수+파산건수)

- 은행권 지원 프로그램과 기업구조혁신펀드 등이 가동되며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으나 코로나19 금융지원 단계적 종료 과정에서 대출 연체 증가 등 고금리 충격이 본격화되고 있음
- '24년 1분기 중 파산 신청 건수는 439건, 회생 신청 건수는 233건으로 '22년 하반기 이후 파산 신청 건이 급증
- 회생 건수 비중은 감소 추세. 즉, 기업들이 회생보다는 파산을 선택 ('20.1Q 44.4% → '21.1Q 46.5% → '22.1Q 37.8% → '23.1Q 37.2% → '24.1Q 34.7%)
- 이는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 부진으로 인한 자금난,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경기부진 지속으로 시장 내 회생 관련 기대감 저하뿐만 아니라, 사전계획안 마련 고충과 회생 절차 지연 등 제도적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

지방 소재 기업과 중소기업의 위기 현실화

지방 중심 부동산 등 전반적 경기부진과 부동산PF 문제 등으로 인해 '23년 기업회생 신청 건수 중 47.6%가 지방 소재 기업임. 또한 '24년 들어 경기 악화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소규모기업들의 간이회생 신청이 급증하는 등 누적된 한계기업의 부실이 현실화되는 양상

법인 회생 및 파산 신청 건수 추이



- 지방 중심 부동산 등 전반적 경기 부진과 부동산PF 부실 등으로 인해 최근 지방 회생법원에 법인회생 신청 건수 급증
 - '23년 지방 소재 회생법원에 기업 회생 신청 건은 461건(전국 대비 47.6%)으로 전년 대비 60.6% 증가
 - 서울회생법원 기업회생 신청 건은 '23년 318건(전국 대비 31.1%)으로 전년 대비 38.9% 증가
 - 수도권 소재 회생법원의 경우 '23년 245건(전국 대비 23.9%)으로 전년 대비 69.0% 증가
- 2024년 들어 부채 50억 원 이하 소규모기업의 간이회생 신청 기업 급증
 - 서울회생법원의 법인회생 신청 건 중 간이회생 비중 최근 증가
 - ('21년 48.6% → '22년 46.7% → '23년 47.1% → '24년 1~5월 57.2%)
 - 고금리, 경기부진 등으로 위기 돌파여력이 없는 소규모 기업에 경제적 위기가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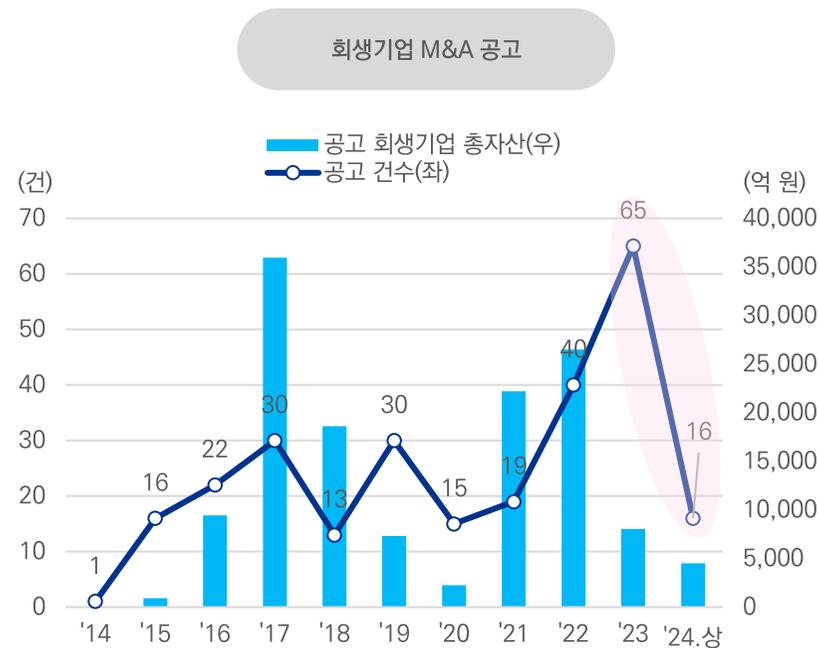
Source: 법원통계월보, 대법원(2023) '2023 사법연감'

Note: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무소·영업소 소재지가 서울이 아닐 경우 채권자 수가 300인 이상, 채무액 500억 원 이상인 경우 서울회생법원에 회생·파산 신청을 할 수 있음

회생기업 M&A 매물 수 증가세, 한계에 이른 기업들의 매각 시도에 기인

법원에 등록된 회생기업 M&A 공고(회생회사에 대한 신규자본유치와 M&A를 촉진하기 위해 채무자의 개요, 자본과 관련된 사항 등을 공고)는 '23년 65건으로 2020년(15건) 대비 4배 증가한 데 이어 '24년 상반기 16건에 달함.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의 단계적 종료, 고금리와 경기 위축 등으로 한계에 도달한 기업들의 매각 시도 확대 중

회생회사 M&A 매물 수와 총자산 규모 (2014년 ~2024년 상반기)



'23~'24.상반기 중 회생기업 M&A 공고 기업(81건)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연도 분포



- 전국 회생법원에 등록된 회생기업 M&A 공고 건수는 '23년 65건('20년 대비 4배 증가) 및 '24년 상반기 중 16건을 기록하며 최근 크게 증가
- 엔데믹 이후 유동성 축소와 고금리, 경기 위축 등의 여파로 '22년부터 회생절차 개시로 결정된 기업이 한계 상황에 도달하여 M&A를 시도하는 것으로 판단
- 회생 M&A 공고 기업들의 총자산 규모는 '17년 3.6조 원(경남기업과 STX 등), '22년 2.6조 원(쌍용자동차 등)을 기록한 이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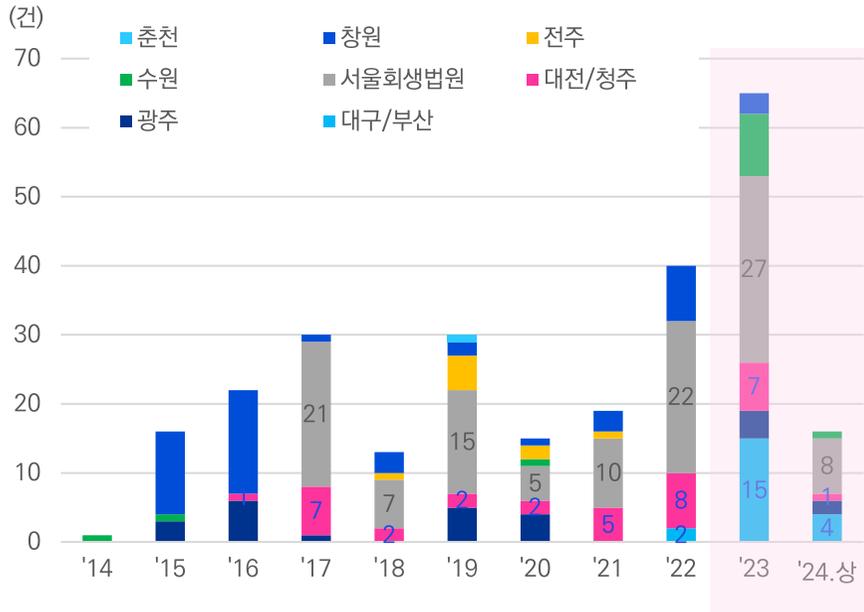
Source: 대한민국 법원, 회생회사 M&A 공고(<https://www.scourt.go.kr/portal/notice/mainfo/MaNoticeList.work>)

Note: 1) 공고계시판 작성일을 공고 시점으로 간주, 2) 2024년 6월 말까지 회생기업 M&A 공고 총 268건 중 파산선고 1건을 제외한 267건 대상 분석, 3) 총자산 규모의 경우 267개 기업 중 결측치(14개사)를 제외한 253개사 대상으로 분석, 4) 회생절차 개시 결정 시점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결측치(17개사)를 제외한 260개 기업 대상

최근 경기 약화에 따라 지방·내수산업·제조업 관련 회생 M&A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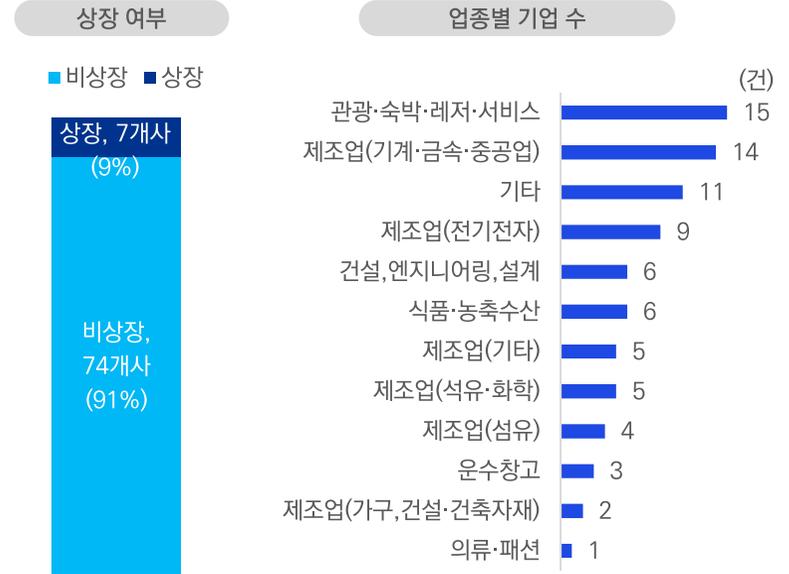
회생기업 M&A 공고 건수 중 43%(267개사 중 115개사)가 서울회생법원에서 등록되었으며, 최근 들어 부동산 등 전반적 경기 부진이 심화되는 대구·부산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증가함. '23~'24년 상반기 중 회생기업 M&A 등록 기업 91%가 비상장사이며, 업종은 관광·숙박·레저·서비스업, 제조업(기계·금속·중공업) 순임

관할법원별 회생기업 M&A 공고 수 추이 ('14년 ~'24년 상반기)



Source: 대한민국 법원, 회생회사 M&A 공고
<https://www.scourt.go.kr/portal/notice/mainfo/MaNoticeList.work>
 Note: 1) 공고 게시판 작성일을 공고시점으로 간주, 2) 각 지역 지방법원 기준이나, 서울의 경우 수원지방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을 포함

'23~'24년 상반기 회생회사 M&A 매물 특성



Source: 대한민국 법원, 회생회사 M&A 공고
<https://www.scourt.go.kr/portal/notice/mainfo/MaNoticeList.work>
 Note: 1) 공고 게시판 작성일을 공고시점으로 간주, 2) 업종은 각 기업 등록산업을 기준으로 분류

전기전자 등 제조업·운수창고업 관련 회생기업 M&A 매각 확대

제조업 중심으로 M&A 절차를 공고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매각을 시도하는 가운데, '23년부터 제조업(전기전자), 제조업(섬유), 운수창고, 관광·숙박·레저·서비스 등의 업종에서 매물화되고 있음. 해당 업황 개선에 대한 전망이 상이한 가운데, 인수 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볼트온 등 인수전략 마련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

공고 회생기업 M&A 산업별 순위 (건수 기준)

(건)

2020	2021	2022	2023	2024. 상반기
건설·엔지니어링·설계 (5)	제조업 (기계·금속·중공업) (6)	제조업 (기계·금속·중공업) (15)	제조업 (기계·금속·중공업) (13)	제조업 (전기전자) (6)
제조업 (기계·금속·중공업) (3)	식품·농축수산 (5)	제조업 (전기전자) (7)	관광·숙박·레저·서비스 (12)	관광·숙박·레저·서비스 (3)
식품·농축수산 (3)	제조업(섬유) (2)	관광·숙박·레저·서비스 (6)	기타 (9)	기타 (2)
제조업(전기전자) (2)	의류·패션 (2)	식품·농축수산 (2)	식품·농축수산 (6)	제조업 (기계·금속·중공업) (1)
관광·숙박·레저·서비스 (1)	건설·엔지니어링·설계 (1)	건설·엔지니어링·설계 (2)	건설·엔지니어링·설계 (6)	제조업 (석유·화학) (1)

공고 회생기업 M&A 산업별 순위 (총자산 기준)

(억 원)

2020	2021	2022	2023	2024. 상반기
건설·엔지니어링·설계 (1,366)	제조업 (기계·금속·중공업) (20,648)	제조업 (기계·금속·중공업) (24,047)	제조업(기타) (2,209)	제조업 (전기전자) (3,625)
식품·농축수산 (489)	식품·농축수산 (723)	제조업(전기전자) (808)	건설·엔지니어링·설계 (2,197)	제조업(섬유) (312)
기타 (212)	운수창고 (292)	제조업(섬유) (617)	제조업 (기계·금속·중공업) (891)	기타 (188)
관광·숙박·레저·서비스 (116)	의류·패션 (261)	건설·엔지니어링·설계 (321)	기타 (744)	운수창고 (176)
제조업 (기계·금속·중공업) (69)	관광·숙박·레저·서비스 (175)	식품·농축수산 (2,216)	관광·숙박·레저·서비스 (575)	관광·숙박·레저·서비스 (168)

Source: 대한민국 법원, 회생회사 M&A 공고 (<https://www.scourt.go.kr/portal/notice/mainfo/MaNoticeList.work>)

Note: 1) 공고게시판 작성일을 공고 시점으로 간주, 2) 2024년 6월 말까지 회생기업 M&A 공고 총 268건 중 파산선고 1건을 제외한 267건 대상 분석, 3) 총자산 규모의 경우 267개 기업 중 결측치(14개사)를 제외한 253개사 대상으로 분석, 4) 회생절차 개시 결정 시점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결측치(17개사)를 제외한 260개 기업 대상, 4) 업종은 각 기업 등록산업을 기준으로 분류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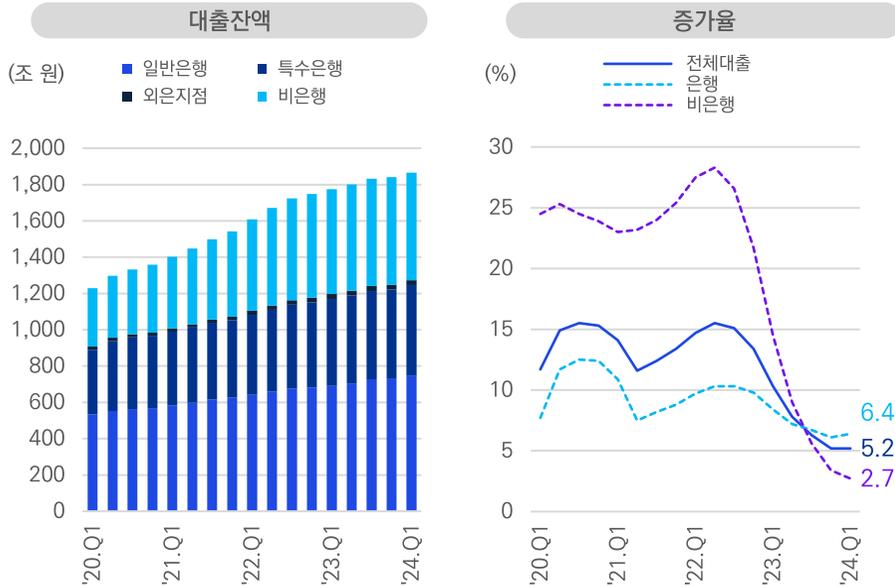
I.	회생 및 파산 신청 현황	2
II.	회생을 둘러싼 기업 경영 현황	11
III.	회생시장 관련 주요 정책	17
IV.	회생시장 전망 및 시사점	23

II. 회생을 둘러싼 기업 경영 현황

기업대출 규모와 연체율 상승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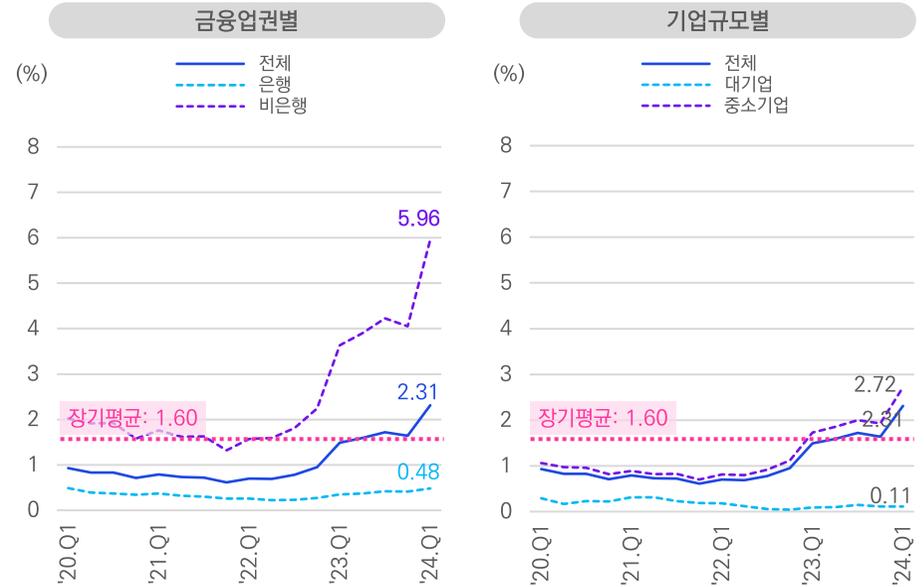
국내기업의 대출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으나, '24년 1분기말 국내 금융권의 기업대출 잔액은 1,866조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2% 증가. 금융권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24년 1분기말 2.31%로 장기평균(1.60%)을 상회,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중. '24.1분기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2.72%로 상승세

국내 금융권의 기업 대출 추이



Source: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한국은행
 Note: 1) 은행은 일반은행, 특수은행 및 외은지점, 비은행금융기관은 저축은행, 상호금융(새마을금고 포함), 보험회사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합계 기준 2) 대출잔액은 기말 기준, 금융 및 보험업 제외 기준. 3)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금융업권 및 기업규모별 기업대출 연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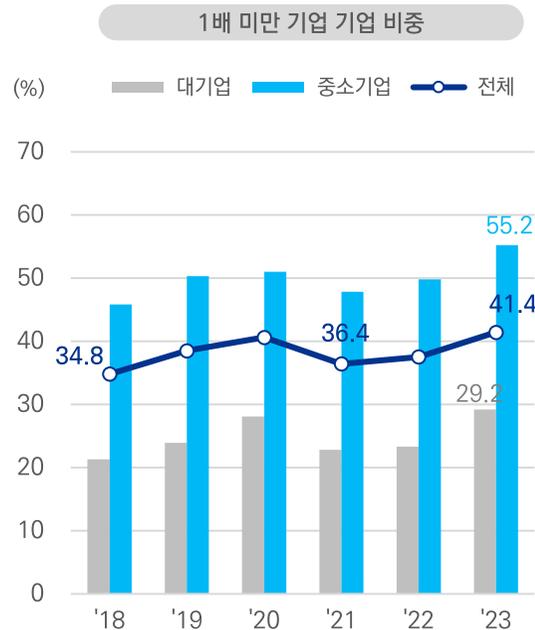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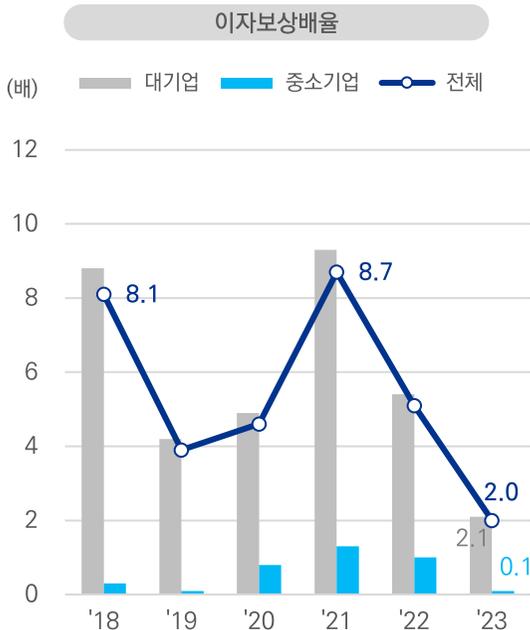


Source: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한국은행
 Note: 1) 은행은 국내은행, 비은행은 저축은행, 상호금융(새마을금고 포함), 보험회사(보험약관대출 제외)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합산 기준. 2) 기업규모는 규모별 분류가 가능한 은행 및 일부 비은행금융기관 합산 기준. 3) 연체율은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상호금융 및 저축은행은 1일 이상 원금 또는 1개월 이상 이자 연체 기준) 4) 장기평균은 2009년 1/4분기 ~ 2024년 1/4분기중 평균, 전체 기준

기업 이자지급능력 하락

'23년 국내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은 2배로 차입금리 상승과 주요 업황 부진 등으로 '21년 이후 하락세. 이자보상배율 1배를 하회하는 기업 비중은 '23년 41.4%(중소기업 55.2%, 대기업 29.2%)에 달함. 국내기업이 취약기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향후 금리 하락 등으로 인한 이자상환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업황 개선으로 인한 영업이익 확대 필요

기업규모별 이자보상배율 등 추이



- 국내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은 '23년 2.0배로 '21년 8.7배에서 '22년 5.1배를 기록하며 하락세
 - 대기업('21년 9.3배 → '23년 2.1배)과 중소기업('21년 1.3배 → '23년 0.1배) 모두 하락
- 이자보상배율이 1배를 하회하는 취약기업 비중은 '23년 말 41.4%로 2021년 36.4% 대비 5.0%p 상승
 - 대기업('21년 22.8% → '23년 29.2%)과 중소기업('21년 47.8% → '23년 55.2%) 모두 상승
- 국내기업 수 기준, 한계기업(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 비중은 증가세를 지속하며 '23년 말 18.3% 기록

Source: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24년 6월)'
 Note: 이자보상배율 = (영업이익/총이자비용)

II. 회생을 둘러싼 기업 경영 현황

부동산PF 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 지속

금융권 부동산 관련 대출 잔액은 '23년 말 기준 540조 원, 부동산PF 대출은 '24년 1분기 말 기준 268조 원. 고금리·고물가와 부동산 경기 약화 등으로 인해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은 '24년 1분기 말 3.55%로 전년 말(2.70%) 대비 0.85%p 상승한 가운데, 증권업과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의 연체율이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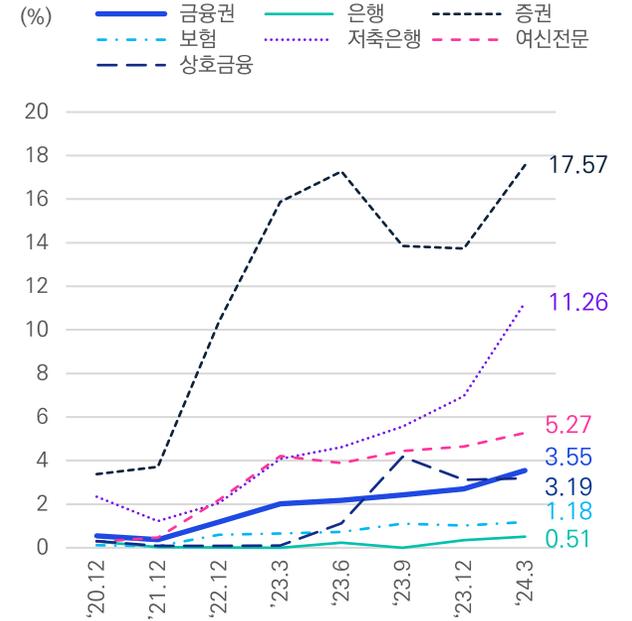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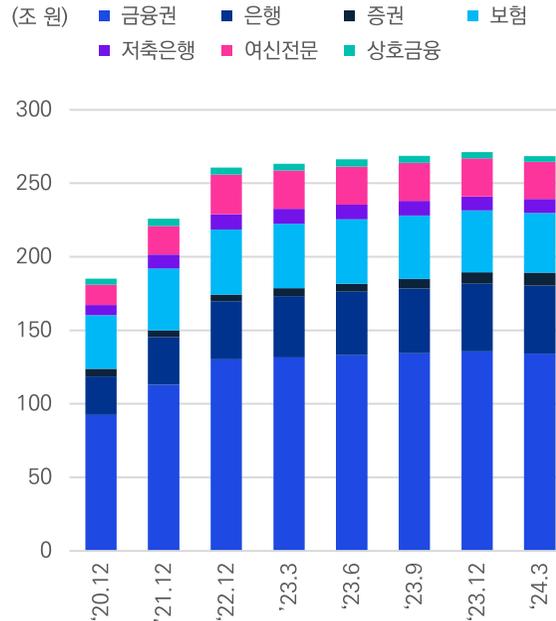
금융권 부동산 대출 현황

(기말 기준, 조 원, %)

	'17(A)	'23(B)	증감(B-A)
■ 금융권 전체	239.8	540.6	300.9 (100.0)
- 부동산임대업	165.7	339.5	173.8 (57.8)
(은행)	138.1	237.8	99.7 (57.4)
(비은행)	27.6	101.6	74.0 (42.6)
- 부동산개발업	66.6	179.7	113.1 (37.6)
(은행)	23.3	53.6	30.3 (26.8)
(비은행)	43.3	126.1	82.8 (73.3)
- 기타부동산업	7.5	21.5	14.0 (4.7)

Source: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한국신용정보원, 한국은행
 Note: 1) 일부 비은행의 경우 추정치 활용 2) 부동산 중개업 및 정보제공업 등 3) ()내는 금융권 전체 대출잔액 대비 비중, <>내는 업종별 대출잔액 소계 대비 비중 기준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잔액(좌) 및 연체율 추이(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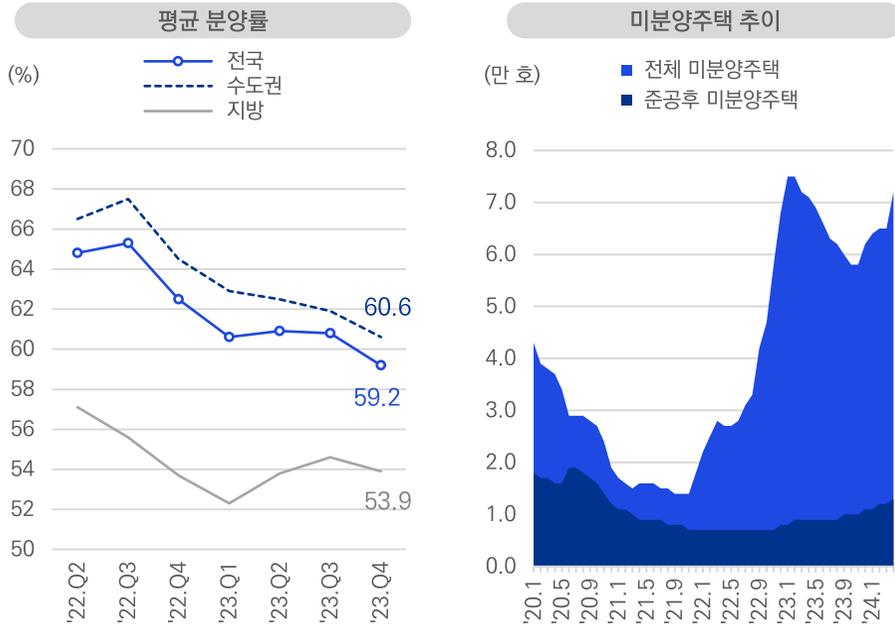


Source: 금융감독원

지방 부동산 경기 약화 속 건설사 재무건전성 약화

'23년 말 전국 평균 분양률은 59.2%로 수도권·지방 모두 하락세로 지방이 특히 부진. 전체 미분양주택은 '24년 4월 기준 7.2만 호, 준공후 미분양주택은 '22년 이후 증가세로 '24년 4월 기준 전국 1.3만 호. 종합건설사의 폐업신고와 회생신청 건수도 증가세이며 주요 재무지표 또한 악화 중. 건설업과 연계된 전후방 기업의 건전성 우려로 모니터링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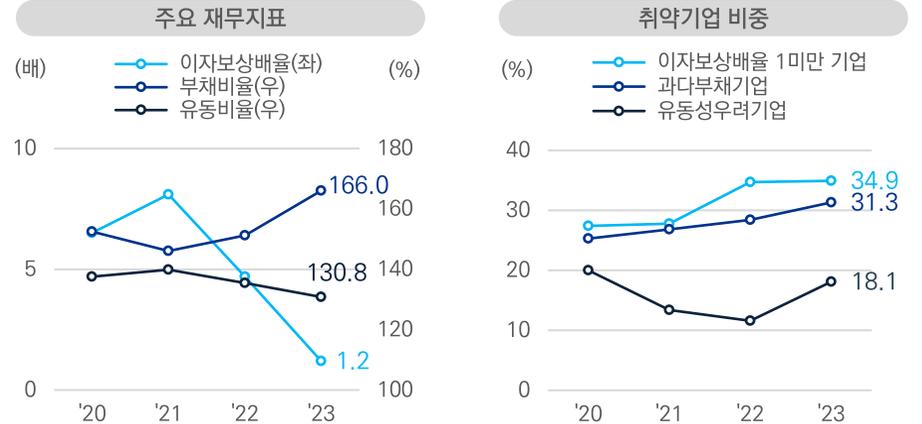
본PF 사업장 평균 분양률과 미분양주택 추이



Source: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Note: 분양률은 분양 중인 사업장 기준

건설사 부도 추이와 재무건전성 관련 지표

	'21년	'22년	'23년	'24년 1분기
종합건설사 부도 (건)	1	5	9	0
종합건설사 폐업신고 (건)	169	261	418	104
종합건설사 회생신청 (건)	-	-	9	18(1~4월 기준)



Source: 한국은행 시산(VALUE Search)
 Note: 1) 연도별 상장기업(일부 비상장기업 포함)의 평균값 기준, 2) 부채비율 200% 상회(완전자본잠식 기업 포함), 3) 유동비율 100%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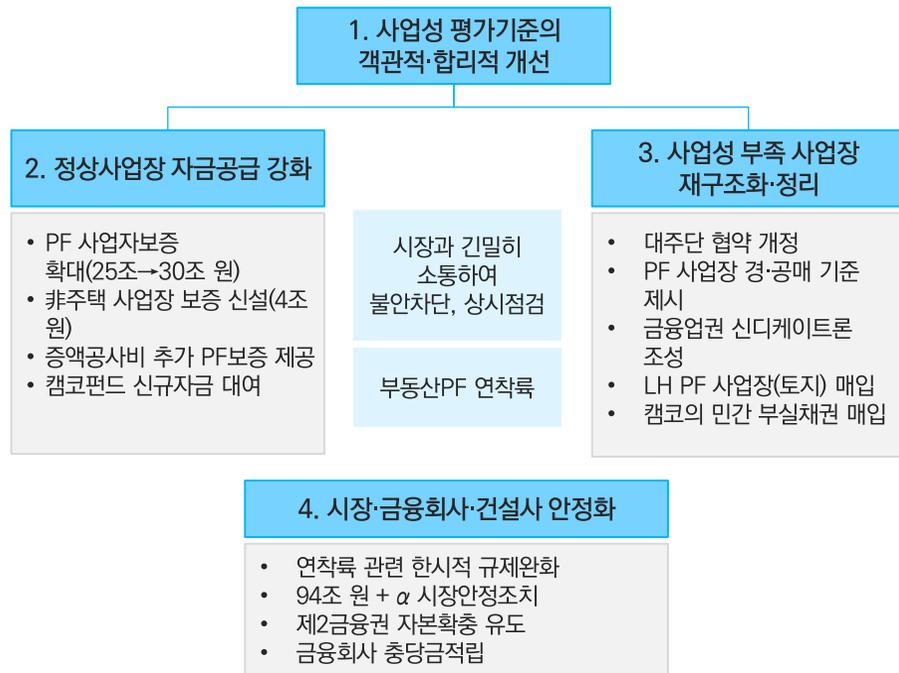
Contents

I. 회생 및 파산 신청 현황	2
II. 회생을 둘러싼 기업 경영 현황	11
III. 회생시장 관련 주요 정책	17
IV. 회생시장 전망 및 시사점	23

사업성 평가 개편 등 부동산 연착륙을 위한 정책 추진

정부는 부동산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해 ①정상 PF 사업장은 원활한 자금 공급, ②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PF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를 골자로 한 부동산PF 사업성 평가의 객관성·합리성 제고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사업성 낮은 사업장에 대한 만기연장·이자유예 조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하는 등 시장에서 정리되도록 유도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24.5.13)



Source: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발표'(2023.5.13)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주요 개선 사항

평가대상 확대	(기존) 본PF와 브릿지론 + (추가) 부동산 개발사업 목적의 토지 매입자금 대출 중 유효담보가액(130% 초과) 충족하여 일반대출로 취급한 여신인 토지담보대출														
평가등급 세분화	(추가) PF 대출채권을 담보로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대해 제공한 채무보증 약정														
평가기준 구체화	3단계(양호, 보통, 악화우려) ▶ 4단계(양호, 보통, 유의, 부실 우려)														
사후관리 기준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 등급별 기준을 PF 사업진행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 반영 및 평가기준의 경직성 완화 														
	<table border="1"> <thead> <tr> <th>[금융회사] 사업성 평가결과</th> <th>[금융회사] 사업성 평가결과 사후관리 기준</th> <th>[금융감독원] 사후관리 점검·지도</th> </tr> </thead> <tbody> <tr> <td>양호</td> <td>정상 진행</td> <td>자율관리</td> </tr> <tr> <td>보통</td> <td>신규 자금공급, 만기연장, 자율협약(유사 시) 등을 통한 지원</td> <td>자율관리</td> </tr> <tr> <td>유의</td> <td>재구조화, 자율매각 추진</td> <td rowspan="2">계획서 징구·점검 (미진 시 현장점검)</td> </tr> <tr> <td>부실우려</td> <td>상각,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td> </tr> </tbody> </table>	[금융회사] 사업성 평가결과	[금융회사] 사업성 평가결과 사후관리 기준	[금융감독원] 사후관리 점검·지도	양호	정상 진행	자율관리	보통	신규 자금공급, 만기연장, 자율협약(유사 시) 등을 통한 지원	자율관리	유의	재구조화, 자율매각 추진	계획서 징구·점검 (미진 시 현장점검)	부실우려	상각,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금융회사] 사업성 평가결과	[금융회사] 사업성 평가결과 사후관리 기준	[금융감독원] 사후관리 점검·지도													
양호	정상 진행	자율관리													
보통	신규 자금공급, 만기연장, 자율협약(유사 시) 등을 통한 지원	자율관리													
유의	재구조화, 자율매각 추진	계획서 징구·점검 (미진 시 현장점검)													
부실우려	상각,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Source: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발표'(2023.5.13)

일시적 어려움 겪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금융지원 개시

76조 원+@ 규모 ‘맞춤형 기업금융지원방안’(’24년 2월)과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24년 3월)의 후속으로 ’24년 4월부터 정책금융기관·5대 은행과 협력해 중소기업 금융비용 경감 특별프로그램과 신속 금융 지원 프로그램 확대. 어려움을 겪는 정상 경영 영위 중소기업과 일시적 유동성 부족기업 지원해 활력 제고·정상화 도모

’24.4월부터 시행된 은행권 금융지원프로그램 및 세부 요건

<p>1. 신성장 분야 진출 중견기업 전용 저리 대출 프로그램 (6조 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DB산업은행과 5대 은행은 신성장분야로 신규진출 및 확대투자를 원하는 중견기업을 위한 저금리 대출프로그램 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잠재력이 높은 9대 테마, 284개 품목으로 구성된 ‘혁신성장공동기준’ 품목 생산·활용하는 중견기업 대상 						
<p>2. 매출하락 등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금리인하 특별 프로그램 (5조 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BK기업은행과 5대 은행은 ‘중소법인 기업 대상 금융비용 경감 특별 프로그램’ 운영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이익 발생 등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자부담이 큰 중소기업 기업 보유 대출 중 대출금리가 5.0%를 초과하는 건 - 차주 신청시 1회, 최대 1년간 대출금리를 5%까지 감면 (최대감면폭은 2%p로 제한) <div style="background-color: #e6e6fa; padding: 10px; margin-top: 10px;"> <p>①~⑥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p>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width: 50%;">① 금감원 표준 신용등급체계(10등급 기준)상 7등급 이상 기업</td> <td style="width: 50%;">④ 자본잠식이 아닌 기업</td> </tr> <tr> <td>② ’22년 연매출 대비 ’23년 연매출 하락</td> <td>⑤ 부채비율 400% 미만인 기업</td> </tr> <tr> <td>③ 이자보상배율 1미만 (단, 3년 연속 1 미만인 한계기업은 제외)</td> <td>⑥ ‘영업이익 > 0’ 인 기업</td> </tr> </table> </div>	① 금감원 표준 신용등급체계(10등급 기준)상 7등급 이상 기업	④ 자본잠식이 아닌 기업	② ’22년 연매출 대비 ’23년 연매출 하락	⑤ 부채비율 400% 미만인 기업	③ 이자보상배율 1미만 (단, 3년 연속 1 미만인 한계기업은 제외)	⑥ ‘영업이익 > 0’ 인 기업
① 금감원 표준 신용등급체계(10등급 기준)상 7등급 이상 기업	④ 자본잠식이 아닌 기업						
② ’22년 연매출 대비 ’23년 연매출 하락	⑤ 부채비율 400% 미만인 기업						
③ 이자보상배율 1미만 (단, 3년 연속 1 미만인 한계기업은 제외)	⑥ ‘영업이익 > 0’ 인 기업						
<p>3. 은행권 공동 신속금융지원 프로그램 대상 및 지원혜택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돕는 ‘신속금융지원프로그램’ 적용 대상 1년간(’24.4~’25.4) 확대 적용 및 1년간 대출금리 크게 인하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margin-to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margin-right: 10px;">(기존)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직면한 기업</div> <div style="font-size: 2em; margin: 0 1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신규)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지만 정상경영이 가능한 기업 - 정상기업이지만 전기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하거나 현금흐름이 음수(-)인 등 기업신용위험평가 재시행 시, B등급을 받을 것이 유력하다고 주채권은행이 판단하는 경우</div> </div>						

Source: 금융위원회 ‘4.1일부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위한11조원+@ 규모의 은행권 지원프로그램이 개시됩니다.’(2024.4.1)

부실징후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촉법 재가동

채권자협의회를 중심으로 부실징후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 일몰 기한을 '26년 10월까지 연장해 부실징후기업이 적기에 워크아웃 제도로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림. 추후 기촉법 연장 조건으로 내건 워크아웃 제도 개편 관련 정책 방향을 모니터링하며 대응 전략 마련 필요

워크아웃 vs 법정관리 비교

	워크아웃	법정관리(회생)
근거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통합도산법
개시요건	채권단 75% 이상 동의	법원 심의
구조조정주도	은행 등 채권단	법원 감독 아래 관리인
적용 대상	금융회사 채권 (비금융회사, 개인 제외)	모든 채권
회사경영통제	금융회사 채무만 통제 상거래 채무 정상결제	회사의 모든 경영행위 통제
대주주 경영권	회사와 채권단 협약에 따라 결정	부실책임있는 대주주 주식무상소각 등
회사정상화기간	3~5년	10년
특징	신속지원, 국책은행 통한 정부 영향력 행사	법원주도 이해관계조정

Source: 언론보도 종합

현행 기촉법 주요 변경 사항 및 고려 요소

기존 대비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제3자 신규 신용공여 시 우선변제권 부여 구조조정 담당자에 대한 면책요건 확대
부대의견	<p>금융위, '25.12.31까지 기업 회생과정에서 법원의 역할 확대를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p>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 제도 개편 작업 본격 착수
현 워크아웃 체제에 법원의 조정 기능을 일부 결합한 모델 등
다양한 논의 진행 중**

- ① 현 채권단 중심의 워크아웃제도에 법원의 '사전 인가제도'를 도입하는 혼합형 워크아웃 도입
- ② 사전 인가 제도의 보완을 전제로, 기촉법의 상시화
- ③ 중소기업 등에 법원의 후견적 관여를 기초로 한 간이회생절차 개시 등 (도산절차) 편입형 워크아웃 도입
- ④ 중소기업 도산절차 관련 관리기능의 전자화·간소화

Source: 언론보도 종합

회생법원, '자율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 개선 추진

서울회생법원은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채권자 간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하는 '자율구조조정 지원 (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ARS) 프로그램'을 '18년 시범 도입, '23년 12월 이를 보완한 新ARS 프로그램 실무준칙 시행. 채무자·채권자 간 유연한 기업구조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예방적 회생절차로 활용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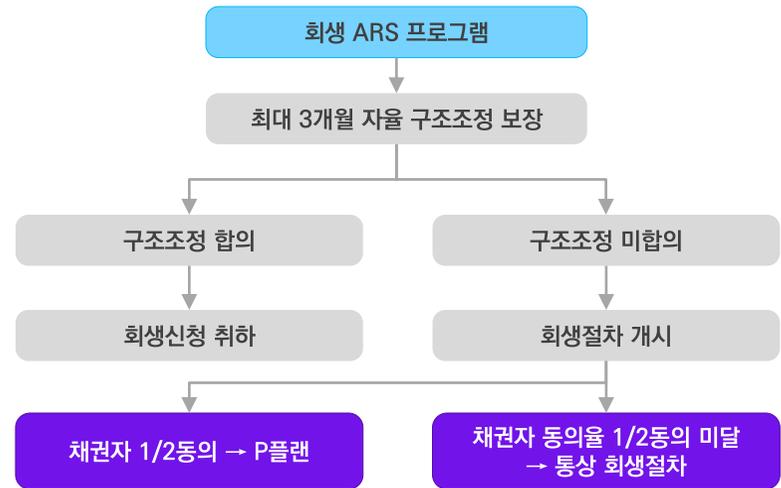
자율구조조정지원프로그램(ARS Program) 개요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ARS Program) <회생절차>	 <p>채무자 (Compan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계속 • 상거래 채권변제 • 구조조정 협의
	 <p>채권자 (Credito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회수 유예/DIP 금융 • 채권자협의회/CRO(구조조정담당임원) • 구조조정 협의(자율협약 등)
	 <p>회생법원 (Cour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생개시 보류(절차협의회) • 구조조정 지원 • 임의적 보전처분, 포괄금지명령, 실사(개시 전 조사), DIP 금융허가

- '23년 12월 서울회생법원은 ① 전문성 있는 중립적 절차 주재자 선임, ② 신청 요건 완화, ③ 채권자 참여권 강화, ④ 법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 조치 제공 등을 명시한 실무준칙 마련

Source: 서울회생법원 '서울회생법원,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시범실시'(2018.7.9),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33호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 프로그램)

ARS 프로그램 적용 시 구조조정 흐름도



- ARS 프로그램은 회생절차에 들어가기 전 최대 3개월까지 자율적 구조조정 기간을 보장
- 객관적 지위에 있는 구조조정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등)를 법원이 절차주재자로 선임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의사소통 촉진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생 방안 도출 가능

Source: 서울회생법원 '서울회생법원,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시범실시'(2018.7.9)

기업구조혁신펀드, 기업 구조조정 마중물로 역할 확대 중

민간자본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돕는 기업구조혁신펀드는 '18년 이후 3차례 조성되어 구조조정시장의 마중물 역할. 구조조정 역량 확충을 위해 '23년 1조 원 추가 조성된 기업구조혁신펀드(5년간 총 4조 원 목표)는 캠프가 운용을 맡아 M&A 관련 유동성 제고와 캠프의 기업지원프로그램과 펀드 투자를 연계해 피투자기업 정상화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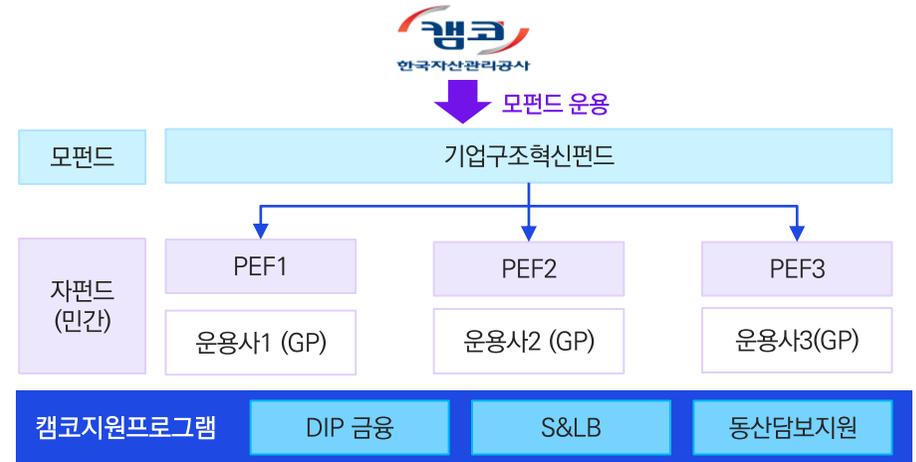
기업 구조조정 마중물로 역할한 기업구조혁신펀드

구분	결성시기	총 조성액 (억원)	모펀드 출자액 (억원)	주요 투자처
1차	'18.8	16,400	5,415	조선/건설/중견/중소기업 43개사에 1조 4,257억 원 투자
2차	'20.5	15,800	5,015	부채투자전용펀드 조성으로 42개사 1조 4,083억 원 투자
3차	'21.5	17,300	4,510	중견/중소기업 및 대기업 계열사 28개사에 1조 3,452억 원 투자

- 한국성장금융이 총 5조 원 규모로 조성한 기업구조혁신펀드 1~3차펀드는 113개 기업에 약 4.2조 원 투자

Source: 한국경제신문 '중기·벤처 구조조정 돕는 한국성장금융...5조 기업구조혁신펀드 투자 '조기완료'(2023.12.27)

제4차 기업구조혁신펀드



- 캠프는 '24.1월 기업구조혁신펀드 4호 자펀드 위탁운용사 5곳에서 총 5,540억 원의 블라인드펀드 결성 완료
- '24.6월 기업구조혁신펀드 5호 추가 조성 및 위탁운용사 선정 공고
- 블라인드펀드 3,350억 원, 프로젝트펀드 1,650억 원으로 총 5,000억 원 규모

Source: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기업구조혁신펀드 제4호 블라인드 펀드 5,540억 원 결성 완료」(2024.1.3)

Note: DIP(Debt in Possession)는 경영자의 경영권을 보장하며 회생기업 등에 자금을 조달하는 프로그램임

Contents

I.	회생 및 파산 신청 현황	2
II.	회생을 둘러싼 기업 경영 현황	11
III.	회생시장 관련 주요 정책	17
IV.	회생시장 전망 및 시사점	23

국가별 경기 차별화, 한국은 수출 호조로 개선 중이나 대외 불확실성 상존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IMF, 세계은행 등이 '24년 글로벌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하고 있지만 미국, 유럽 등 경기 회복은 상이한 양상. 한국은 수출 호조를 기반으로 경기 회복이 예상되나 주요 지정학적 이슈의 전개 양상과 주요국 통화정책 등의 영향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존하므로 모니터링 필요

IMF '24년 글로벌 경제성장률 전망치 조정

(단위: %, %p)

구분	'23년	'24년 전망			'25년 전망		
		4월 발표	7월 발표	차이	4월 발표	7월 발표	차이
전세계	3.2	3.2	3.2	0.0	3.2	3.3	+0.1
미국	2.5	2.7	2.6	△0.1	1.9	1.9	0.0
유로존	0.4	0.8	0.9	+0.1	1.5	1.5	0.0
일본	1.9	0.9	0.7	△0.2	1.0	1.0	0.0
영국	0.1	0.5	0.7	+0.2	1.5	1.5	0.0
한국	1.4	2.3	2.5	+0.2	2.3	2.2	-0.1
중국	5.2	4.6	5.0	+0.4	4.1	4.5	0.4

- IMF는 물가 하락과 견조한 민간소비 등에 힘입어 양호한 회복세를 전망하며 '25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24년 4월 전망 대비 7월 0.1%p 상향한 3.3%로 제시
-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고금리 등으로 과거 연평균 성장률('00~'19년, 3.8%)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

Source: IMF(July 2024)

시나리오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 ('24년 5월 기준)

(단위: %, %p)

구분	'23년	'24년	'25년
기본 전망	1.4	2.5	2.1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	조기진정 » 부정적 공급충격 완화	+0.1	+0.3
	심화 »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금융여건 악화	-0.2	-0.5
글로벌 긴축 기조 장기화 » 글로벌 교역 및 성장세 둔화		-0.1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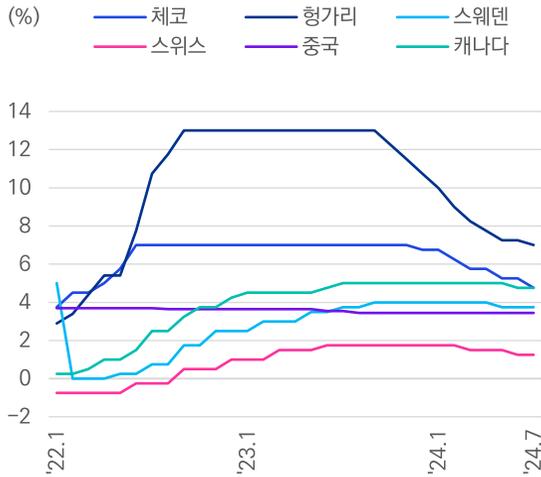
- 국내 경제는 반도체,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 모멘텀 강화, 완만한 소비 개선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전망됨
- 우리나라 경기 회복세는 주요국 통화정책 운용, IT경기 확장 속도, 국제유가 및 환율 등에 따른 불확실성 상존

Source: 한국은행 '경제전망 Indigo Book(2024년 5월)'(2024.5)

연내 미국 정책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약화 중

각국은 고물가 대처를 위해 금리 인상을 펼쳐왔으나 최근 경기둔화 우려로 일부 국가가 금리를 인하. '22년 9월부터 한미 금리 역전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횟수와 인하 폭에 대한 시장 기대는 약화. 원화가치 하락 등의 우려로 한국은행의 선제적 금리 인하는 어려운 여건. 누적된 고금리 부담으로 인한 부실 가능성에 유의해야 함

유럽 지역, 중국 등의 피벗(Pivot) 현황



- 경기 침체 우려로 중국 및 유럽 일부 국가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
- 블룸버그는 전 세계 23개 주요국 중 향후 18개월 이내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

Source: Bloomberg, 국제금융센터, 언론보도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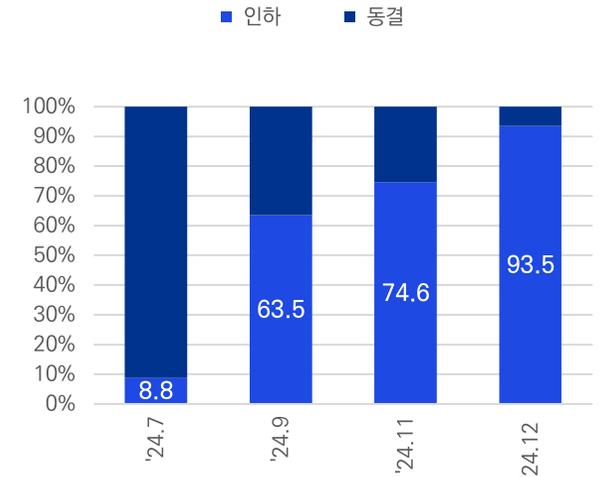
한국과 미국 기준금리 추이



-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 미국 정책금리의 격차는 금리 상단을 기준으로 2%p로 한미 금리 역전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
-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내수 부진 등에 따라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 압박도 점증

Source: 한국은행

미국 정책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



- 나 홀로 성장을 이어가던 미국은 연준의 신중한 통화정책 구사로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짐
-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조짐도 보이고 있으나 인플레이션 경로 및 대선 등 불확실성 요인이 여전히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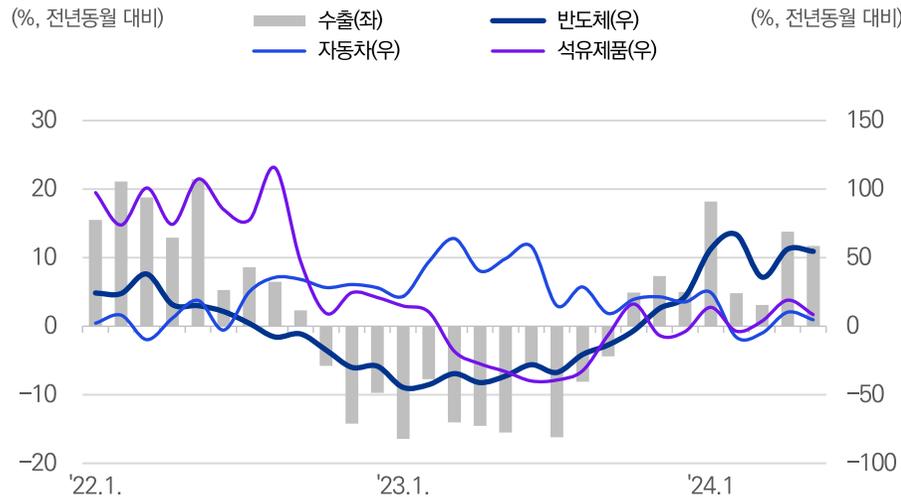
Source: CME Group
Note: '24.7.1. 기준

IV. 희생시장 전망 및 시사점

수출 회복세로 국내 경기 개선세나 부문별 차별화 양상

AI(인공지능) 붐에 따른 IT 경기 호조로 최근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되면서 국내 경기 개선을 견인하고 있으며, 글로벌 반도체 업황 개선과 주요국 회복세로 수출 증가세와 관련 설비투자 확대가 이어질 전망. 반면, 입주물량 축소와 신규착공 부진, 부동산PF 구조조정 관련 불확실성에 노출된 건설투자 등의 경우 감소 흐름이 이어질 전망

국내 수출 증감률



- 2023년 9월부터 반도체·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수출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경기 회복을 견인 중
- 향후에도 AI 수요 확산, 글로벌 제조업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수출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

Source: 산업통상자원부

국내 부문별 경제성장률 전망 ('24년 5월 기준)

(단위: %)

구분	'23년	'24년		'25년	
	연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민간소비	1.8	1.4	2.2	2.4	2.3
설비투자	0.5	1.2	5.7	5.8	2.1
지식재산생산물투자	1.6	2.2	2.6	2.6	3.9
건설투자	1.3	-1.1	-2.7	-2.7	0.3
재화수출	3.1	7.0	3.4	2.5	3.6
재화수입	-0.6	-0.8	5.6	5.1	1.2

- 민간소비의 경우, 하반기 이후 가계 실질소비 개선으로 회복세가 이어질 가능성
- IT 경기 호조 등으로 수출과 설비투자는 증가흐름을 보일 전망
- 반면, 건설투자의 경우 부동산 경기 약화세와 신규 착공 부진으로 단기간 개선이 어려우며, 부동산PF 구조조정 관련 하방 리스크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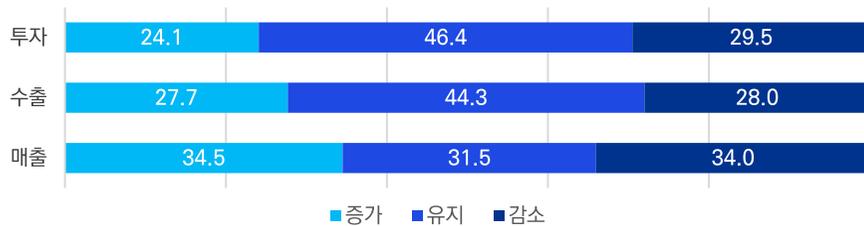
Source: 한국은행 '경제전망 Indigo Book(2024년 5월)'(2024.5)

여전히 고금리·고물가,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대한 우려 존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서 '24년 매출은 응답자의 34.5%는 증가할 것이라고, 34.0%는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 경영활동 리스크 주요 요인으로 ①유가 등 원자재 가격, ②고금리 등 자금조달부담이,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물가관리·금리정상화'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선정됨. 제조업·비제조업 업황 BSI는 소폭 개선되었으나, 70대 수준

기업 경영환경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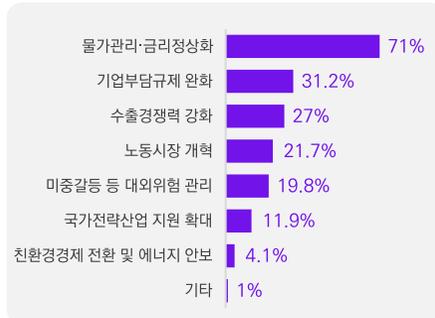
Q. 작년 대비 2024년 부문별 경영실적 전망



Q. 올해 대내외 경영활동 리스크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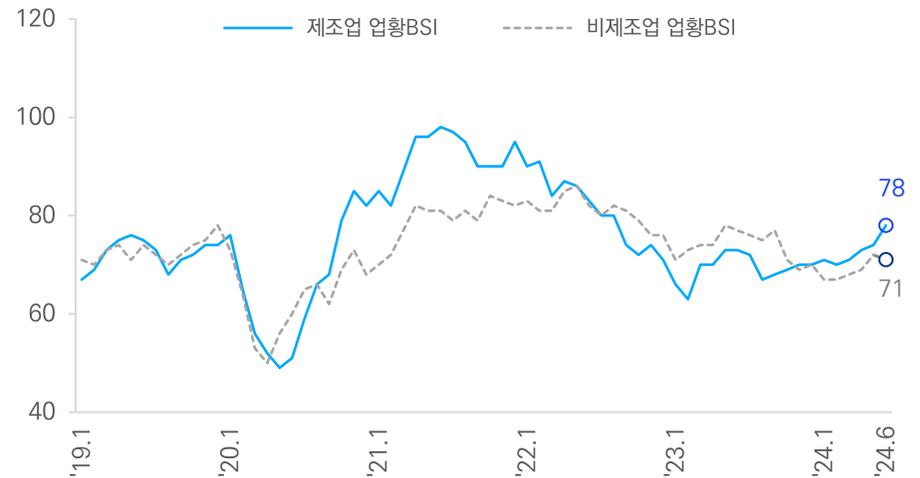
Q. 경제회복을 위한 중요 정책과제



Source: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이 바라본 2024 경영·경제 전망조사'
 Note: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156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추이

(Base=100)



- 제조업·비제조업 업황 BSI는 2024년 들어 회복세나 여전히 70대를 기록
- '24년 6월 제조업 업황 BSI는 전월 대비 4p 상승한 78, 비제조업은 1p 하락한 71

Source: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업종별 회복세 차별화 및 업황·자금사정 약화 산업 내 회생 증가 예상

'24년 6월 제조업의 업황BSI 상승은 조선·기타운수(100), 자동차(94)가 이끌어낸 반면, 섬유(51), 목재·나무(45) 등은 부진. 비제조업 부문에서 운수창고업(89) 가장 높았으며 건설업은 부동산PF 관련 구조조정 우려가 건설업계 심리를 위축시키며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48)를 기록. 업황과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산업에서 기업회생 증가가 예상됨

2024년 6월 업종별 주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구분	업황		생산		신규수주		제품재고		자금사정	
	5월	6월	5월	6월	5월	6월	5월	6월	5월	6월
제조업	74	78	85	88	80	81	104	104	80	83
조선·기타 운수	103	100	95	113	90	97	92	90	82	92
자동차	93	94	95	96	91	86	103	106	89	91
전자·영상· 통신장비	81	91	78	85	85	83	109	113	81	91
섬유	55	51	67	65	64	61	104	104	60	71
가죽·가방· 신발	64	54	72	76	66	70	110	104	72	70
목재·나무	55	45	72	66	57	54	97	105	65	59
금속가공	68	72	78	81	73	75	97	98	78	80
대기업	83	85	91	94	87	89	106	107	89	92
중소기업	65	69	79	82	71	73	102	102	71	74
수출기업	81	85	88	93	84	86	109	106	87	89
내수기업	71	74	84	85	78	79	102	104	77	81

구분	업황		매출		채산성		자금사정	
	5월	6월	5월	6월	5월	6월	5월	6월
비제조업	72	71	77	80	79	81	80	82
어업	58	55	65	69	65	67	63	69
광업	71	79	71	89	90	98	81	81
전기·가스·증기	93	84	89	86	91	102	93	90
하수·폐기물처리업	63	64	68	70	75	70	75	72
건설업	51	48	65	68	65	69	65	68
서비스업	76	76	80	83	82	82	82	85
도소매업	73	70	72	80	74	78	79	84
운수창고업	89	89	92	95	90	89	86	85
숙박업	77	63	75	84	75	81	75	81
정보통신업	76	76	80	83	88	83	91	92
부동산업	61	66	72	73	73	80	73	80

Source: 한국은행 '2024년 6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및 경제심리지수(ESI)'(2024.6.27)

기업회생, 재기의 발판으로 활용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대응 방안 (1/2)

회생시장에서 매출 증가 전망 및 성공적 기업회생을 위한 이해관계자 고려사항 및 대응 전략

<p>1</p> <p>유동성 위기 등 재정적 어려움에 당면한 기업, 위기관리와 재기를 위한 방안으로 회생제도 검토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지역별·업종별 경기 차별화 양상,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지방소재·제조업·내수산업 등에서 한계기업 증가 전망회생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동의와 법원 인가를 전제로 기업 재기를 도모하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낙인효과에 대한 우려로 회생 절차 진행의 최적 시점을 놓칠 경우,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기업가치 훼손으로 회생 절차를 밟지 못하는 상황에 봉착할 수 있음이에 과다한 부채, 유동성 위기와 채무 연체 등 재정적 어려움에 당면한 기업은 사업 지속성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 피해 최소화 차원에서 재무적 구조조정 방법으로 회생 등을 빠르게 검토할 필요
<p>2</p> <p>기업 특성에 맞는 최적의 회생 계획과 전략 마련 및 이를 통한 이해관계자 동의·협조 방안 모색</p>	<ul style="list-style-type: none">기업회생 절차가 법원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공정성, 형평성, 실현 가능성, 합리성을 가진 회생계획안 필수기업 특성에 맞는 최적의 회생 계획과 전략 마련과 이를 통한 이해관계자의 동의 필요<ul style="list-style-type: none">이해관계인의 권리 조정 관련 사항, 채무자의 사업운영 계획,개정상태, 채무변제 계획, 향후 경영 효율성과 재무구조 개선 전략 등 구체적 계획 수립 포함
<p>3</p> <p>기존 기업이나 투자자, 회생기업에 대한 다각적 분석과 인수 전략을 통해 사업 강화 기회로 활용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전반적 경기부진으로 부실기업 증가에 따른 회생기업뿐만 아니라 재무부담에 놓인 기업들의 구조조정, 카브아웃(Carve-out) 거래 증가 전망매물로 나오는 기업 중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가치가 높아지거나 볼트온(Bolt-on)을 통해 자사 기업가치 확대 등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기업에 대한 인수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 가능이를 위해서는 회생기업 인수 전략에 대한 다각적 분석 및 향후 운영 방안 등 전략 마련 필요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기업회생, 재기의 발판으로 활용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대응 방안 (2/2)

회생시장에서 매출 증가 전망 및 성공적 기업회생을 위한 이해관계자 고려사항 및 대응 전략

<p>4</p> <p>회생계획 인가 전·후 M&A 등 기업 매각가치 높이는 방안 적극 고려 ... 공정성과 적정성 확보 필수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생기업 M&A는 신규자금 확보와 새로운 경영주체를 통해 기업가치 유지와 영업 계속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음• 회생계획 인가 후 M&A 뿐만 아니라 인가 전 M&A 및 개시신청 전 M&A 등 다양한 방법 고려 가능<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시기에 따라 ① 회생계획 인가 전 영업양도, ② 회생계획에 의한 M&A, ③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절차 종료 전의 M&A로 분류 가능하며, 내용에 따라 ① 제3자 배정 신주 인수 방식, ② 영업양수도 방식 등 선택 가능-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매각가치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선제적 검토 필요• P-플랜,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의 M&A, ARS 프로그램 등은 보다 신속하게 회생기업의 매각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인수계약의 적정성 및 사전 인수희망자의 경영능력, 자금동원력,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공정성과 적정성 담보될 필요
<p>5</p> <p>성공적 회생 절차와 M&A 등을 위해 전문성·노하우 가진 제3자 관리인의 역할 중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생제도와 M&A의 성공을 위해서는 채무자와 그의 채권자 및 주주 간 복잡한 이해관계를 중립적 위치에서 조정하는 제3자 관리인의 역할 중요<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생전략, M&A, 자산 매각, 자본 유치 등에 대한 전문성, 신속성, 공정성 등을 확보한 제3자 관리인이 종합적 관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어야 함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Business Contacts

기업회생 및 구조조정 서비스 전문팀 (T&R, Turnaround & Restructuring)

기업회생 자문

양진혁
T&R 리더, 전무
T 02-2112-0432
E jinhyukyung@kr.kpmg.com

박현
상무
T 02-2112-7428
E hyunpark@kr.kpmg.com

신상욱
상무
T 02-2112-0100
E sangwookshin@kr.kpmg.com

기업 구조조정 자문

서무성
전무
T 02-2112-7639
E mooseongseo@kr.kpmg.com

박주홍
전무
T 02-2112-0780
E juheungpark@kr.kpmg.com

최상욱
전무
T 02-2112-7445
E sangwookchoi@kr.kpmg.com

서민호
상무
T 02-2112-3189
E mseo3@kr.kpmg.com

NPL 자문

김정환
전무
T 02-2112-3133
E junghwankim@kr.kpmg.com

home.kpmg/kr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4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